

OC, 한인 정치 1번지로 부상 ... 한인 후보 대거 당선



▲ 영 김(연방하원) ▲ 미셸 박 스틸(연방하원) ▲ 데이브 민(가주상원) ▲ 최석호(가주하원) ▲ 태미 김(어바인시의원) ▲ 프레드 정(풀러턴시의원) ▲ 메건 유 슈나이더(OC수도국위원)

오렌지카운티(OC)가 미국 내 한인 정치 1번지로 부상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선거에서 OC에서는 모두 9명의 한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13일 현재 이 가운데 6명의 당선이 확정됐다. 연방하원에 도전한 영 김 후보의 당선은 이날 오전까지 확정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날까지 개표가 99% 진행된 가운데 득표율 50.6%로 상대후보를 4,058표 차이로 앞서고 있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영 김 후보는 선거관리국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이후 승리를 선언할 예정이다.

영 김 후보까지 승리하면 OC에서 각종 선거에 출마

해 당선된 한인은 모두 7명에 이르게 된다. 단일 카운티에서 이처럼 많은 한인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례는 없었다.

그간 OC는 한인 인구 증가로 인한 한인 커뮤니티 확장으로 꾸준히 한인 정치력 신장에 대한 욕구가 커져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선거에서 그 열매를 맺었다. 특히 선거 당선자들은 하나같이 한인 밀집지역에서 출마해 거둔 결과여서 한인들의 선거 참여가 한인 정치력 신장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물론 OC에서 출마해 값진 성과를 거둔 당선인들이 한

인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뛰어난 자질의 후보들인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들 대부분이 50%를 조금 상회하는 득표율로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둔 점을 고려할 때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승리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날 오전 현재 선거 승리가 확정된 한인은 미셸 박 스틸(연방하원), 데이브 민(가주상원), 최석호(가주하원), 태미 김(어바인시의원), 프레드 정(풀러턴시의원), 메건 유 슈나이더(OC수도국위원)등이다.

LA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 운영

12월 24일까지 ...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2월 24일(목)까지이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입국 상태 간이 조사 등 특별 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

상황령·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다만, 위 1)의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신청 방법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재기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미국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LA 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 민원실에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민원실 접수 위해 사전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적으로, 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면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연락하여 재기 신청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해 고소인 등 정보제공, 간이 조사방식 등 사건 처리 절차를 협의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무료 법률 상담도 할 수 있다.

LA 총영사관 측은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권 발급 등에 제한이 있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 며 "특별자수기간을 운영을 통해 재

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바로잡습니다

지난호(1341호) 13면 '선택2020, 한인 후보들 명암 엿갈려' 제하의 기사내용 가운데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연방하원에 재선된 한인의 이름은 '앤지 김' 이 아닌 '앤디 김' 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500

KMC Dental Group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